

1930년대 기교주의 논쟁의 텍스트언어학적 분석*

이병주*

목차

1. 서론
2. 선행연구 검토와 이론적 토대
3. 연구방법론
4. 분석 결과
5. 맺음말

본 연구는 1930년대 기교주의 논쟁에 참여한 김기림·임화·박용철 세 비평가의 비평 텍스트 29편(총 51,420어절)을 텍스트마이닝과 텍스트언어학의 방법으로 분석한다. 정규화 빈도(NF)·로그 우도비(LL)·상호정보량(MI)·강화·완충 비율(BHR)·접속 표지 분포를 분석 도구로 삼고, 텍스트언어학의 응결성(cohesion)과 메타담화(metadiscourse) 개념을 활용하여 해석한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 비평가의 어휘적 정체성은 로그 우도비 분석에서 뚜렷하게 변별되었다. 김기림은 비평·모더니즘·과학, 임화는 낭만주의·언어·리얼리즘, 박용철은 인상·효과·기술을 고유한 어휘장으로 삼았다. 특히 박용철의 로그 우도비 상위에 임화·김기림의 고유명이 두드러지게 출현하는 것은 그가 논쟁의 대상을 의

식적으로 호명하며 논쟁에 대응하는 양상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둘째, 담화 자세를 측정한 강화·완충 비율(BHR)은 임화(1.07)·김기림(0.71)·박용철(0.44) 순으로 나타났다. 임화는 전 시기에 걸쳐 단언적 자세(BHR>1)를 일관되게 유지하며 여파기에 정점(1.46)에 이르렀고, 박용철은 완충 표지가 가장 밀집하여 세 비평가 중 가장 유보적이었다.

셋째, 기교·기술이라는 단어 사용 빈도의 통시적 추이를 살펴본 결과, 세 비평가 모두 논쟁기에 기교 사용이 증가하였으며, 변별되는 지점은 기술이라는 단어의 사용에 있었다. 박용철은 기술이 전(全) 시기 우위에 있었고, 임화는 기교를 비판 대상으로만 일시적으로 사용하였으며, 김기림은 논쟁기에 기교와 기술의 무게중심이 역전되었다. 임화의 내용과 형식의 결합은 두 어휘의 높은 공기 강도(MI 3.58)로, 세 비평가의 상이한 논증 구조는 접속 표지 분포로 확인되었다. 김기림은 인과형, 임화는 대조·첨가형, 박용철은 대조형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본 연구는 인식 준거점과 발화 양식의 호응을 분석하였다. 김기림과 임화는 동일하게 내용 우선의 어휘 구성을 보이면서도 담화 자세는 갈렸다. 김기림은 완충 표현이 강화 표현을 앞서(BHR 0.71) 단정을 보류하고 가능성을 검토하는 분석적·탐색적 자세를 취한 반면, 임화는 강화 표현이 우세하여(BHR 1.07) 명제를 단언적으로 제시하는 양상을 보였다. 박용철의 영감은 절대 빈도가 극히 낮으면서도(NF 0.87) 세 비평가 중 가장 유보적인 자세(BHR 0.44)를 보여주었다. 이는 인식 준거점이 담화 자세를 직접 결정하지 않으며, 영감과 같은 개념이 반복 논증의 주제가 아니라 담론의 전제로 기능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의의는 정성적 해석을 단순히 확인하는 데 있지 않다. 메타담화 표지의 의미를 수작업으로 검증하여 계량 지표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빈도만으로 분간되지 않는 어휘 사용의 방향은 정독으로 판별하며, 핵심 어휘가 논쟁 과정에서 결정되는데 통시적 양상은 시기별 빈도로 추적함으로써, 정적(靜的) 유형론으로 환원되지 않는 논쟁의 움직임을 가시화하였다.

논문 분야: 국문학, 한국 문학비평, 디지털 인문학

주제어: 기교주의 논쟁, 김기림, 임화, 박용철, 텍스트마이닝, 텍스트언어학, 코퍼스 분석, 응결성, 메타담화

1. 서론

최근 국문학계에서 ‘디지털 인문학’(Digital Humanities)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은 일찍이 『세계 디지털 인문학의 현황과 전망』(2019)을 ‘디지털인문학총서’의 첫 권으로 펴냈고, 연세대학교는 『디지털 인문학과 근대한국학』(2020), 『근대한국학 데이터베이스 자료집 1』(2020), 『『만세보』 논설 자료집』(2020) 등으로 성과를 공유해왔다. 고려대학교 디지털인문융합연구원(D-HUSS)은 『디지털 휴머니티즈가 개척하는 인문학: 한일 연구자의 대화』(2025)와 『인문학의 데이터 분석과 디지털 콘텐츠』(2025)와 같은 최신 연구 동향을 반영한 서적을 잇달아 출간했으며, 단국대학교 한문교육연구소는 한중 공동기획으로 『한국과 중국의 디지털인문학 연구』 시리즈(2024~2025)를 펴내는 등 여러 대학이 디지털 인문학의 연구방법론을 선보이고 있다. 이러한 대학의 관심은 개인 연구로도 확산되고 있다. 허수¹의 어휘 연결망 분석이나 이재연²의 토픽 모델링과 공기어 분석은 텍스트마이닝 기법의 국문학적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중에서도 개인 간의 이념 갈등이나 문단 내부의 권력관계를 담고 있는 ‘비평’의 경우 조금 더 다층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비평 텍스트는

* 이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3S1A5A8079304).

** 공군사관학교 어문학과 조교수, bj3632@gmail.com

1 허수, 2014, 「어휘 연결망을 통해 본 ‘제국’의 의미」, 『대동문화연구』 87,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501~561쪽; 허수, 2022, 「1920년대 신채호의 텍스트와 ‘민중」, 『역사비평』 140, 역사문제연구소, 282~306쪽.

2 이재연, 2016, 「키워드와 네트워크: 토픽 모델링으로 본 『개벽』의 주제 지도 분석」, 『상허학보』 46, 상허학회, 271~316쪽; 이재연, 2016, 「『생활』과 ‘태도’ - 기제가 읽은 『개벽』과 『조선문단』의 작품 비평어와 비평가」, 『개념과 소통』 18, 5~52쪽.

평가적 주장을 근거와 함께 제시하는 논증 텍스트이며, 그 논증 구조는 문장 연결 표현, 비평가가 자주 사용하는 개념어의 반복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비평은 작품에 대한 평가적 메타 텍스트라는 점에서 추천글·서평·해설 등과 장르적 인접성을 공유하며, 이들 인접 장르에 대한 텍스트언어학적 분석은 비평 텍스트를 텍스트언어학의 방법론으로 분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성과를 바탕으로, 텍스트마이닝 기법과 텍스트언어학 이론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1930년대 기교주의 논쟁을 분석한다. 텍스트마이닝은 대규모 텍스트에서 빈도·핵심어·공기 관계 등 계량화된 패턴을 산출하는 데 유효하지만, 그 패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별도의 해석 틀을 요구한다. 한편 텍스트언어학은 문장 단위를 넘어 텍스트의 맥락과 발화자-수신자 관계까지 포괄하는 이론적 틀을 갖추고 있으나, 그 이론과 방법론을 실제 텍스트 분석에 적용하는 단계에는 충분히 이르지 못하여 전반적으로 정체되어 있다는 자성이 일부 연구자에 의해 제기되었다.³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제기를 이어받아 각 분야의 공백을 상호 보완할 방법을 고민하였다. 이는 텍스트마이닝이 방대한 자료에서 계량적 패턴을 산출하고, 텍스트언어학이 그 패턴을 실제 담화의 맥락 속에서 해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1930년대 기교주의 논쟁을 선택한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기교주의 논쟁은 김기림·임화·박용철이라는 세 비평가가 명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상호 응답하는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어서 담화 분석의 대상으로 적합하다. 둘째, 이 논쟁에 대한 질적 연구

3 박용익, 2017, 「텍스트언어학의 혁신과 도약을 위한 ‘인문 텍스트언어학’」, 『텍스트언어학』 42, 한국텍스트언어학회, 31~57쪽.

가 상당량 축적되어 있어서 텍스트마이닝의 정량 결과와 교차 검증할 수 있다. 셋째, 이 논쟁의 텍스트 규모(29편, 약 51,420어절)는 코퍼스 언어학 기준에서는 소규모이나, 계량 분석의 패턴을 텍스트 전체의 정독(close-reading)으로 상호 검증하는 본 연구의 방법론에는 오히려 적합하다. 소규모 코퍼스에서 오는 불안정성은 정규화 빈도·2분할 비교·안정성 검정(LOO·부트스트랩)으로 통제하고자 하였다. 다만 본 연구의 목적은 각 시론의 문학적·미적 수준을 평가하는 데 있지 않고, 논쟁에서 나타난 어휘와 담화 자세의 양상을 분석하는 데 있다.

위의 세 이유에 더해, 본 연구는 기교주의 논쟁에 축적된 해석 중 두 선행연구에 주목하였다. 강계숙⁴은 김기림과 임화 사이의 상호응대가 논쟁보다 논의에 가까웠으며 진정한 설전은 임화와 박용철 사이에서 벌어졌고, 박용철이 논쟁의 쟁점을 기교에서 '기술(技術)'로 전환시켰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후 신문봉⁵은 세 비평가가 기교주의 개념을 둘러싸고 각자 상이한 인식의 준거점에 근거하여 개념을 인식했음을 발견했다. 그는 김기림은 지성적 형식을 준거점으로 삼아 기교주의를 인식했고, 임화는 내용의 사상성을 준거점으로 삼아 기교주의를 형식주의와 동일시했으며, 박용철은 천재적 영감을 준거점으로 삼아 기교주의와 낭만주의를 변별하되 영감과 형식적 기교를 동시에 강조하는 독특한 위치를 점했다고 보았다. 이 두 해석은 텍스트에 대한 정독(close-reading)에 기반한 해석이다.

다만 이러한 정성적 해석의 공백이 있다. 개별 텍스트의 분석은 가능

4 강계숙, 2014, 「기교주의 논쟁의 시론적 의의」, 『현대문학의 연구』 54, 한국현대문학연구회, 213~254쪽

5 신문봉, 2022, 「1930년대 기교주의 논쟁에 나타난 인식의 준거점 - 형식과 내용, 그리고 영감」, 『우리어문연구』 74, 31~59쪽.

하나 거시적인 구조를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첫째, 김기림·임화·박용철 세 비평가를 담화 속에서 구별할 수 있는가. 핵심어 분석·공기어 분석·접속 표지 분석·메타담화(metadiscourse) 표지 분석으로 세 비평가의 어휘 사용과 발화 양식의 차이를 규명한다. 둘째, 강계숙이 발견한 기교 → 기술 전환과 신문봉이 분석한 세 비평가의 준거점은 정량 분석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정독으로 닿지 못한 어휘 의미장의 미세한 변화를 공기어 분석으로 밝혀보고자 한다. 셋째, 선행연구들이 정독으로 읽어낸 내용 차원의 인식 준거점은 비평가의 발화 양식과 어떻게 호응하는가. 이 세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는 인식 준거점이 발화 양식을 직접 결정하지 않음을 드러내는 한편, 각 비평가의 변별 어휘가 논쟁 이전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논쟁 과정에서 형성·결정되는 통시적 양상을 함께 밝히고자 한다. 이는 빈도나 정독만으로는 파악되지 않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해당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텍스트마이닝은 분석 도구로서 활용하고, 실제 분석하는 틀로는 텍스트언어학의 방법론을 적용하고자 한다. 텍스트마이닝을 통해 산출된 결과는 그 자체로 인문학적 의미를 갖지 않으며, 텍스트언어학의 이론 틀 안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해석되어야 한다. 텍스트마이닝이 무엇이 보이는가를 산출하고 텍스트언어학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해석하는 분업이 본 연구의 방법론적 핵심이다.

이를 통해 첫째, 한국 근대 비평사 연구의 관점에서는 기존의 정성적 해석에 정량적 수단을 더함으로써, 어휘 의미장과 담론 차원에서 정독이 닿지 못한 영역을 새로 가시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디지털 인문학의 관점에서는 텍스트마이닝이라는 정량적 도구가 텍스트

언어학의 분석과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를 한 사례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2장에서는 기교주의 논쟁 연구사·텍스트언어학과 메타 텍스트 분석 그리고 디지털 인문학과 한국 근대문학 연구의 세 갈래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본 연구의 이론적 토대인 텍스트 언어학의 두 층위·텍스트마이닝과 코퍼스 언어학·근대 한국어 분석 도구를 정리한다. 3장에서는 기교주의 논쟁의 시간적 전개를 다섯 시기로 재구성하고, 본 연구가 적용할 분석 틀을 미시 결속·어휘적 응결·메타담화의 층위에서 다섯 가지 도구의 텍스트언어학적 운용으로 구체화한다. 4장에서는 이 분석 틀을 적용한 결과를 제시하고 5장 맺음말에서는 본 연구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후속 연구의 방향을 논한다.

2. 선행연구 검토와 이론적 토대

1) 선행연구 검토

기교주의 논쟁에 대한 본격적 학술 연구는 김용직이 시문학과 연구의 일환으로 박용철의 시론을 다루며 비평사적 좌표를 처음 정립한 이래, 윤여탁, 오형엽, 한형구, 류찬열 등이 각각 다른 각도에서 논쟁의 전개 과정과 시론사적 함의를 분석해왔다.⁶ 이들 작업은 공통적으로 세 비평

6 윤여탁, 1994, 「1930년대 기교주의 논쟁의 전개와 그 의미」, 『한국어교육학회지』 52, 한국어교육학회, 1~20쪽; 오형엽, 2023, 『한국 근대시와 시론의 구조적 연구』, 태학사; 한형구, 2005, 「30년대 문단 재편과 시론의 비평적 전개: '기교주의 논쟁' 재음미」, 『한국현대문학연구』 17, 한국현대문학회, 221~253쪽; 류찬열, 2000, 「1930년대 기교주의 논쟁

가의 시론적 입장과 이론적 근거를 전통적인 국문학 연구 방식으로 읽어냈다.

텍스트언어학의 문학적 적용 가능성은 이미 조동일⁷이 ‘구조분석’과 ‘텍스트언어학’의 유사성으로 검토한 바 있으며, 조동일 이후 한국어 매체 텍스트에 텍스트언어학을 본격 적용한 작업은 구나경⁸의 연구가 주목할 만하다. 구나경은 안중근 의거 보도에서의 인물 지칭어 분기, 이봉창 의거 보도의 헤드라인 거시구조, 만평의 은유·환유 등을 분석하여, 발화 주체의 이데올로기적 위치에 따라 의미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비판적 담화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 CDA)을 도구로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다. 구나경의 연구는 본 연구의 ‘기교’나 ‘형식’ 등 동일 기표를 비평가별로 분석하려는 시도와 유사하다. 한편 박나리⁹는 이상문학상 수상작품집의 ‘추천글’을 대상으로 스웨일스(Swales)의 CARS 모형(Create A Research Space model)에 기반한 장르 분석을 수행하여, 추천글이 ‘총평 → 내용 평가 → 형식 평가 → 감상 → 독자 메시지’라는 이동마디(move)와 하위 단계(step)의 정형적 구조를 보임을 밝혔다. 이 연구는 두 가지 점에서 본 연구에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첫째, 문학 텍스트 자체가 아닌

에 관한 연구, 『어문논집』 28, 중앙어문학회, 181~199쪽.

- 7 조동일, 2000, 「문학작품의 구조분석」, 『텍스트언어학』 9, 텍스트언어학회, 1~13쪽.
- 8 구나경, 2012, 「비평적 담화분석 관점에서 살펴본 개화기 해외발행 민족지의 안중근 의거 보도」, 『텍스트언어학』 33,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13~260쪽; 구나경, 2013, 「비평적 담화분석 관점에서 살펴본 일제강점기 의거보도 연구: 이봉창 의거를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34, 한국텍스트언어학, 63~101쪽; 구나경, 2014, 「비평적 담화분석 관점에서 살펴본 만평 분석 - 경향신문에 나타난 대통령 이미지를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36, 한국텍스트언어학, 1~39쪽.
- 9 박나리, 2021, 「‘추천글(Book Endorsements)’에 대한 장르 분석적 연구 - 2014-2020년 ‘이상문학상’ 추천글을 대상으로」, 『텍스트언어학』 50, 한국텍스트언어학회, 33~64쪽.

문학 텍스트에 대한 메타적 텍스트인 추천이라는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하는 텍스트를 텍스트언어학적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비평 텍스트 역시 문학작품에 대한 평가·반박·주장을 포함하는 메타적 텍스트로서, 정형적 분석이 가능하다. 둘째, 박나리가 추천글의 언어적 특징으로 제시한 ‘[+긍정적 평가]의 명사’, ‘창작행위를 표시하는 수행동사’, ‘독자를 향한 발화수반행위 동사’ 등의 분석 범주는 비평 논쟁 텍스트에서 비평 가별 언어 표현의 차이를 다루는 데 참조할 만하다.

한편 디지털 인문학의 방법을 한국 근대문학 연구에 적용한 작업은 2010년대 중반 이후 본격화되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재연은 『개벽』과 『조선문단』의 작품 비평어를 토픽 모델링과 공기어 분석으로 정량화하여 비평어와 비평가의 관계를 가시화했다. 본 연구는 이재연의 비평어-비평가라는 관심사를 논쟁 텍스트로 옮긴다는 점에서 계보 속에 있다. 허수는 어휘 연결망 분석으로 제국·제국주의·민족 등의 개념의 의미를 추적했고, 이 작업은 개념의 의미장의 변화를 한국 근대 텍스트에서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2020년대의 흐름은 이러한 초기 작업의 성과를 토대로 거시적 지형 분석으로 확장되고 있다. 전성규¹⁰는 51종 근대 잡지의 목차 어휘 2만 7천여 건과 필진 정보 1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잡지 어휘 변화와 잡지 간 네트워크를 분석하여 근대 잡지 지형의 거시적 구조를 제시했으며, 단일 잡지 코퍼스 분석에 머무는 경향을 비판하면서 디지털 인문학이 지식장 전체를 거시적으로 분석하는 방향성을 피어야 함을 주장했다. 본 연구가 단일 비평 논쟁의 미시적 깊이를 추구하는 점에서 전성규의

10 전성규, 2023, 「한국 근대 잡지의 계량적 연구 방법에 대한 논의: 코퍼스 구축 및 데이터 분석의 사례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사연구』 82, 민족문화사연구소, 159~210쪽.

거시적 지향과는 방향을 달리하지만, 두 접근의 결합을 위한 토대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지해인¹¹은 이상 단편소설 13편을 대상으로 연구자 주도 감각 분류 데이터와 딥러닝 기반 감정 분류 데이터를 구축하고 멀리서 읽기와 가까이 읽기를 결합하는 분석을 했는데, 데이터와 소스 코드를 공개함으로써 후속 연구자들이 방법론에 접근하기 쉽도록 하였다. 이 작업은 본 연구가 채택하는 정량과 정성의 분업을 문학 텍스트에서 구체화한 사례로서 본 연구의 방법론적 모델이 된다. 또한 전성규¹²는 『황성신문』(1898~1904) 잡보란 기사를 대상으로 토픽 모델링·개체명 인식(named entity recognition, NER)·QGIS 공간 시각화를 결합한 디지털인문학 연구를 제시했는데, 분석 절차를 단계별로 명시함으로써 재현 가능성을 확보하였으나,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러한 디지털 인문학 연구의 강점은 대규모 텍스트에서 패턴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능력에 있다. 하지만 발견된 패턴을 인문학적으로 해석할 이론 틀이 부족하다는 것은 여전히 한계로 남는다. 어휘의 빈도와 토픽 분포 등이 산출되어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별도의 해석틀을 요구한다. 본 연구는 이 해석틀을 텍스트언어학에서 가져옴으로써 디지털 인문학의 해석 공백을 메우고자 하였다.

11 지해인, 2024, 「디지털 감각·감정 분석을 통한 이상 문학의 에피파니 연구」, 『상허학보』 72, 상허학회, 753~827쪽.

12 전성규, 2026, 「근대 신문자료 공간분석을 위한 디지털인문학 워크 플로우 - 『황성신문』(1898~1904) 잡보란 일본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133,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9~258쪽.

2) 이론적 토대

본 연구가 분석 틀의 토대로 삼는 것은 텍스트를 문장의 단순한 연쇄가 아니라 응집적이고 구조화된 의미 단위로 다루는 텍스트언어학이다. 텍스트언어학은 반 다이크(van Dijk)의 텍스트 문법과 거시구조·상위구조 이론을 통해 체계화되었는데,¹³ 그는 텍스트의 의미 구조와 장르적 구성을 분석 단위로 도입하여 텍스트의 구조와 담화 기능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본 연구는 텍스트언어학의 두 층위 개념인 응결성(cohesion)과 메타담화(metadiscourse)를 분석 틀로 삼는다.

할리데이와 하산¹⁴이 정립한 응결성 이론은 텍스트의 표면적 연결을 지시(reference), 대용(substitution), 생략(ellipsis), 접속(conjunction), 어휘적 응결(lexical cohesion)로 나누고, 이러한 표지들이 어떻게 텍스트의 결속성을 실현하는지를 체계화했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두 자원은 접속 표지와 어휘적 응결이다. 접속 표지(그러나·따라서·말하자면 등)는 명제와 명제 사이의 논리적 관계를 표층에 노출시키므로 비평가의 논증 방식을 직접 드러내며, 어휘적 응결은 동일 어휘·유의어·상위어의 반복을 통해 텍스트의 의미적 연속성을 유지한다. 본 연구의 접속 표지 분석은 접속 자원을 정량적으로 추적하는 도구이며, 공기어 분석은 어휘적 응결을 정량적으로 추적하는 도구로 활용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하일랜드가 정립한 메타담화 모델을 살펴보자. 메타담화 모델은 텍스트에서 명제 내용을 넘어 발화자의 태도와 발화자-독자 간의

13 반 다이크, 2001, 『텍스트학』, 정시호 역, 아르케.

14 M. A. K. Halliday and R. Hasan, 1976, *Cohesion in English*, London: Longman.

관계를 표시하는 언어를 대상으로 한다. 하일랜드는 메타담화 표지를 텍스트의 조직을 안내하는 자원(interactive resource)과 발화자의 자세를 표시하는 상호작용적 자원(interactional resource)으로 구분하는데, 그중에서도 후자에 속하는 완화 표지(hedge)와 강조 표지(booster)가 차지하는 비율은 비평가의 인식론적 태도를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본 연구가 사용하는 한국어 메타담화 표지는 선행연구에 근거한다. 텍스트적(textual) 메타담화 표지는 본 연구의 접속 표지 분석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박상경¹⁵이 150만 어절 규모의 장르균형말뭉치를 토대로 체계화한 분류를 따른다. 한편 강화·완충 비율(BHR) 산출에 사용하는 강화·완충 표지는 대인적(interactional) 메타담화에 속하는 것인데, 그에 해당하는 한국어 표지 목록은 정혜승¹⁶과 홍혜란·박지순¹⁷이 제시한 유보·확신(완곡·강조) 체계에 근거한다. 다만 이들 목록은 모두 현대 한국어 학술 담화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비평 텍스트에 그대로 적용하면 완충 표지를 과대 집계할 우려가 있다. 특히 ‘ㄴ 수 있다’는 관찰·제시를 표시하는 용법으로 빈출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목록을 1930년대 비평 어법에 맞추어 조정하되, ‘ㄴ 수 있다’에 대해서는 형태에 따른 의미 구분을 적용하고 그 타당성을 수작업 표본 검증으로 확인하여 활용한다.

같은 이유에서 강조 표지 쪽도 점검하였다. 강조 목록의 ‘물론’은 본 비평 텍스트에서 ‘물론 X, 그러나 Y’처럼 화자의 확신이 아니라 반대 논

15 박상경, 2025, 「한국어의 텍스트적 메타담화표지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6 정혜승, 2012, 「대화적 문식성 교육을 위한 상위담화(metadiscourse) 범주 구성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43, 국어교육학회, 459~485쪽.

17 홍혜란·박지순, 2020, 「한국어 교육을 위한 텍스트 장르별 메타 담화 표지 연구」, 『국제어문』 84, 국제어문학회, 79~114쪽.

점을 일단 인정한 뒤 뒤집는 양보 표지로 빈출한다. 이를 모두 강조로 세면 비평가의 자세가 실제보다 단언적으로 나타나므로, ‘물론’도 용법에 따라 강조와 비강조로 구분하여 집계하되, 그 판정을 두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코딩하여 검증하였다.

이어서 본 연구가 채택하는 텍스트마이닝의 분석은 코퍼스 기반 담론 분석(corpus-based discourse analysis)에 토대를 두고 있다. 베이커¹⁸가 체계화한 코퍼스 기반 담론분석은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핵심어 분석(keyword analysis)·공기어 분석(collocation analysis)·용례색인(concordance) 등 기법을 담론 분석에 결합한 시도로, 영국 언론 이슬람(Islam) 재현 연구가 그 대표적 성과다. 이들 작업은 코퍼스 언어학이 빈도 통계가 아니라 담론의 형성·변동·재편을 추적하는 해석 장치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본 연구는 이 전통에서 빈도 분석·핵심어 분석(로그우도 비, log-likelihood ratio, 이하 LL)·공기어 분석(상호정보량, mutual information, 이하 MI)을 분석 도구로 채택한다.

다만 텍스트마이닝의 결과가 인문학 연구에서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추가 조건이 필요하다. 비더만¹⁹은 V-TM(Validating Text Mining)에서 텍스트마이닝의 결과가 기술적·방법론적·인식론적 세 수준의 평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술적 수준은 분석 도구의 정확성을, 방법론적 수준은 절차의 적절성을, 인식론적 수준은 측정된 패턴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해석 틀의 타당성을 각각 보장한다고 한

18 P. Baker, 2006, *Using Corpora in Discourse Analysis*, London: Continuum; Baker, Gabrielatos P., C. Gabrielatos, and T. McNery, 2013, *Discourse Analysis and Media Attitudes: The Representation of Islam in the British Pres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 G. Wiedemann, 2016, *Text Mining for Qualitative Data Analysis in the Social Sciences: A Study on Democratic Discourse in Germany*, Wiesbaden: Springer.

다. 특히 인식론적 요건은 텍스트마이닝 외부의 이론 틀에서 가져와야 하는데, 본 연구는 이를 텍스트언어학(응결성·메타담화)에서 가져옴으로써 V-TM의 인식론적 요건을 충족하고자 하였다.

이런 방법론적 차용에도 불구하고, 1930년대 한국어 비평 텍스트에 텍스트마이닝을 적용할 때 형태소 분석은 주의를 요한다. 현대 한국어에 최적화된 형태소 분석기(Kiwi, Mecab, Okt 등)는 1930년대 특유의 옛 표기·연철이나 국한문혼용체의 미등록어 문제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병준²⁰은 1890~1940년대 근대 신문·잡지 약 7억 7천만 음절로 학습한 서브워드(subword) 기반 형태소 분석기(ModernKoreanSubword)를 개발·공개한 바 있다.

본 연구의 코퍼스는 주로 현대 한글 표기로 수정된 전집 판본에 기초하므로, 1차 전처리에는 형태소 분석기 Kiwi를 사용하였다. 다만 Kiwi가 1930년대 어법을 적절히 다루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김병준의 'ModernKoreanSubword'로 코퍼스의 어휘를 교차 검증하였다. 그 결과 세 비평가 코퍼스에서 분석기가 인식하지 못한 어휘(미등록어)의 비율은 0.04% 이하로 매우 낮았다. 이는 본 코퍼스가 현대 한국어 분석기로 처리 가능한 수준임을 뜻하며, 다만 옛 표기·연철에서의 일부 분석 오류 가능성은 한계로 남는다.

20 김병준, 2024, 「근대 국한문혼용체 자료 서브워드 기반 형태소 분석기의 설계와 적용」, 『디지털인문학(KJDH)』, 1(2), 디지털인문학, 68~76쪽.

3. 연구 방법론

1) 코퍼스의 구성

표 1 비평 텍스트의 규모

비평가	편수	어절수
임화	11	26,883
김기림	12	18,783
박용철	6	5,754
합계	29	51,420

본 연구의 코퍼스는 1930년대 기교주의 논쟁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논쟁의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는 김기림·임화·박용철의 비평 텍스트 29편을 수집하여 구성하였다.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최대한 많은 텍스트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교주의 논쟁의 직접적 쟁점인 기교·기술·낭만주의·리얼리즘·언어 등을 명시적 주제로 삼거나 그에 대한 입장 표명을 포함하는 것, 둘째, 논쟁이 본격화된 1935년을 전후한 시기(1930~1937)에 발표된 것을 원칙으로 하되, 비교를 위하여 논쟁 이전의 비평 텍스트 일부를 포함하였다.

비평가별 코퍼스 규모는 임화 26,883어절(11편), 김기림 18,783어절(12편), 박용철 5,754어절(6편)이며, 전체 51,420어절이다. 임화의 코퍼스가 가장 규모가 크고 박용철이 가장 소규모인 것은 박용철의 비평적 생산량 자체가 다른 두 비평가에 비해 상당히 적었기 때문이다. 이 규모의 불균형은 세 비평가를 비교할 때 해석상의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절대 빈도 대신 정규화 빈도를 분석의 기본 단위로 채

택하였다.

2) 분석 도구 및 계량 지표

본 연구는 코퍼스 언어학적 계량 분석을 위한 Python 스크립트의 설계 및 작성을 생성형 AI와 협업하여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정규화 빈도(NF)·로그우도비(LL)·상호정보량(MI)·강화·완충비율(BHR)·접속 표지 분포 등 각 계량 지표의 산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연구자는 분석 지표의 종류와 시기 구분을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기준을 설정하였고, AI는 그것을 코드로 효율적으로 구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²¹

(1) 정규화 빈도(NF: Normalized Frequency)

정규화 빈도는 어절 수의 차이에서 오는 비교 불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1,000어절당 출현 횟수로 산출한 것이다. 특정 어휘의 NF가 높다는 것은 비평가가 해당 어휘를 담론의 중심에 놓고 반복적으로 사용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는 어휘가 해당 비평가의 언어적 실천에서 핵심적 개념 범주로 기능하였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NF가 낮거나 사실상 0에 수렴한다는 것은 그 어휘가 해당 비평가의 담론에서 주변적 위치에 있거나, 자신의 언어로서가 아니라 타자의 언어로서만 간헐적으로 등장하였으므로 읽을 수 있다.

21 본 연구의 코드 개발 및 분석 과정은 Anthropic의 Claude Code(opus 4.8)와의 협업을 통해 수행되었다. 연구의 재현성 확보를 위해 분석에 사용된 코퍼스 텍스트, Python 분석 스크립트 및 전체 분석 결과를 공개하였으며, 다음의 GitHub 저장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github.com/ByeongjooLee/Critical-Debates> (검색일: 2026. 6. 21.).

(2) 로그우도비(LL: Log-Likelihood)

로그우도비는 특정 어휘가 해당 비평가 텍스트에서 다른 두 비평가의 텍스트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빈도로 출현하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LL 값이 높다는 것은 자주 사용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두 비평가와 비교하였을 때 해당 비평가에게만 특이하게 집중된 어휘임을 뜻한다. 따라서 LL 상위 어휘는 각 비평가의 담론을 다른 비평가의 담론과 변별하는 어휘적 정체성, 곧 해당 비평가만의 담론적 특이성을 드러내는 지표로서 의의를 지닌다. 다만 코퍼스 규모가 작으므로, 본 연구는 LL의 절대 수치가 아니라 각 비평가 안에서 어느 어휘가 상위에 오는가라는 상대적 순위를 중심으로 해석한다.

(3) 상호정보량(MI: Mutual Information)

상호정보량은 두 어휘의 공기(共起) 관계를 측정하는 것으로, 두 어휘가 우연적 공기 이상으로 얼마나 긴밀하게 결합하여 나타나는지를 수치화한다. MI 값이 높을수록 두 어휘가 해당 비평가의 텍스트에서 개념적 연계 관계를 형성하며 사용됨을 의미하고, 낮을수록 두 어휘가 서로 독립적으로 사용됐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대상어 좌우 일정 범위(원도 ± 5) 안의 공기를 그 범위 크기로 정규화하여 MI를 산출하였다. 한편 MI는 두 어휘가 함께 쓰인다는 사실만 보여줄 뿐 어느 쪽이 주제인지는 알려주지 않으므로, 실제 용례와 함께 해석한다.

(4) 강화·완충 비율(BHR: Booster-Hedge Ratio)

강화·완충 비율은 화자의 명제적 확신 정도, 즉 담화 자세(epistemic stance)를 계량적으로 측정하는 지표이다. 강화 표현(반드시·결코·분명히·~임에 틀림없다 등)은 화자가 자신의 명제에 대해 높은 확신을 표명하는 언

어 장치이며, 완충 표현(어쩌면~인 듯하다~인지 모르겠으나 등)은 명제에 대한 유보와 불확실성을 표명하는 장치이다. BHR이 높다는 것은 해당 비평가가 자신의 주장을 단언적·확정적 어조로 제시하는 경향이 강함을 의미하며, 이를 이념적 확신이 강하거나 논쟁적 대립 국면에서 공격적 입장을 취하는 것과 연관 지어 해석할 수 있다. 반대로 BHR이 낮다는 것은 명제 제시 방식이 분석적·탐색적이며 유보적임을 의미하며, 이는 대상에 대한 객관화 지향이나 복수의 가능성을 열어 두는 논증 태도와 관련된다. 다만 이 지표는 문체적 개인차와 장르 관습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다는 점에서 단독으로 활용하기보다 다른 지표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BHR은 완충 표지의 코딩에 민감하다. 특히 완충 목록의 ‘ㄴ 수 있다’는 본 비평 텍스트에서 ‘볼 수 있다·파악할 수 있다’처럼 불확실성이 아니라 관찰·제시를 표시하는 용법으로 빈출하는데, 이를 모두 완충으로 세면 비평가의 자세가 실제보다 유보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본 연구는 ‘ㄴ 수 있다’를 어미 형태에 따라 완충(양보·추측형)과 비완충(평서·관형형)으로 구분하여 집계하였다. 이 형태 규칙의 타당성은 두 단계로 검증하였다. 첫째, 무작위로 추출한 40개 용례를 연구자가 문맥을 읽고 직접 판정한 결과 형태 규칙과 40개 모두 일치하였다. 둘째, 같은 40개를 제2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코딩한 결과도 40개 모두 동일하였다. 다만 완충으로 판정된 사례가 소수에 치우쳐 있고, 두 코더가 동일 분과 배경이라는 점은 한계로 남는다.

(5) 접속 표지 분석

아울러 접속 표지의 유형별 분포를 분석함으로써 각 비평가의 논증 구조의 특성을 검토하였다. 접속 표지는 대조·원인-결과·첨가·예시·환언·요약·결론의 다섯 유형으로 범주화하여 NF를 산출하였다. 원인-결과

형 접속 표지의 NF가 높다는 것은 인과적·논리적 추론 구조로 논지를 전개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는 분석적 논증 스타일을 반영한다. 대조형 접속 표지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논증이 본질적으로 대립 구도의 설정과 비판을 중심으로 전개됨을 의미한다. 예시·환언형 표지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자신의 개념을 반복·재진술하거나 구체적 사례로 설명하는 서술 방식을 선호함을 나타낸다.

3) 시기 구분

표 2 비평 텍스트와 시기 구분

시기	날짜	비평가	제목	어절	
전 기	전사 이전기	1930.3.2	박용철	시문학 창간에 대하여	305
		1931.7	김기림	상아탑의 비극	3904
		1931.11	박용철	효과주의적 비평론강	956
		1931.12	박용철	신미시단의 회고와 비판	563
	전사기	1933.5	김기림	비평의 재비평	1480
		1933.6.14~17	임화	동지 백철군을 논함	1598
		1933.7	김기림	포에시와 모더니티	1221
		1933.8	김기림	현대 예술의 원시에 대한 욕구	579
		1934.1.1~12	임화	33년을 통하여 본 현대 조선의 시문학	6003
		1934.2	임화	현대의 문학에 관한 단상	741
		1934.3.30	김기림	문예비평(3) - 비평의 태도와 표정	1126
		1934.4.19~25	임화	낭만적 정신의 현실적 구조	2147
		1934.11.16~18	김기림	새 인간성과 비평 정신	1124
		발단기	1935.2.10~14	김기림	시에 있어서의 기교주의의 반성과 발전
	1935.4		김기림	시의 기술, 인식, 현실 등 제문제	1371
	1935.11.29~12.6		김기림	현대비평의 딜렘마	2344
논 쟁 기	전개기	1935.12	임화	답천하의 시단 일년	4072
		1935.12.25~27	박용철	올해 시단 총평	1499
		1936.1.1~5	김기림	시인으로서 현실에 적극 관심	811
		1936.1	임화	위대한 낭만정신	2198
		1936.2	임화	기교파와 조선시단	2650

시기	날짜	비평가	제목	어절
여파기	1936.3	임화	언어의 미술성	2510
	1936.3.18~25	박용철	기교주의설의 허망	1582
	1936.5	임화	언어의 현실성	1010
	1936.6	임화	예술적 인식과 표현수단으로서의 언어	960
	1937.1	박용철	시적변용에 대해서	849
	1937.2.22~26	김기림	과학과 비평과 시	1760
	1937.10	임화	사실주의의 재인식	2994
범위 외	1939.10	김기림	모더니즘의 역사적 위치	1452
합계			29편	51420

기교주의 논쟁의 전개 과정을 세분화하여 포착하기 위해 본 연구는 29편의 텍스트를 발표 시점에 따라 다섯 시기로 구분하고, 범위 외는 비교 참조용으로 두었다. 전사 이전기는 1933년 이전으로, 본격적인 논쟁이 형성되기 전 박용철의 초기 비평 활동이 해당된다. 전사기는 1933년 1월부터 1935년 1월까지로 논쟁의 직접적 계기가 되는 각 비평가의 입장 정립 시기에 해당한다. 발단기는 1935년 2월 김기림의 「시에 있어서의 기교주의의 반성과 발전」 발표로 시작되며 논쟁의 명시적 시작 국면이다. 전개기는 1935년 12월부터 1936년 3월까지로, 임화의 「담천하의 시단 일년」, 「기교파와 조선시단」, 「언어의 미술성」, 박용철의 「을해시단 총평」, 「기교주의설의 허망」이 집중 발표되는 논쟁의 절정이다. 여파기는 1936년 4월부터 1937년 말까지로, 논쟁이 일단락된 이후 각 비평가가 언어론 또는 리얼리즘론으로 논의를 심화하는 시기이다. 마지막으로 범위 외는 이 논쟁의 직접적 맥락에서 벗어난 1939년 이후의 텍스트로, 본 분석에서는 비교 참조 용도로만 활용하였다.

소규모 코퍼스에서 발생하는 통계적 불안정성을 제어하기 위해, 시기별 분석과 이분할 비교를 수행하였다. 전사 이전기·전사기·발단기를 묶

어 ‘전기(前期)’, 전개기·여파기를 묶어 ‘논쟁기(論爭期)’로 이분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이 이분할은 세분화된 시기 분석이 지닌 소규모 셀 문제를 보완하면서도, 논쟁 전후의 어휘 및 담화 변화를 총괄적으로 포착하려는 것이다. 나아가 본 연구는 주요 결론이 개별 텍스트나 표본 변동에 좌우되지 않는지를 두 방식으로 점검하였다. 하나는 텍스트를 한 편씩 제외하고 결론을 재계산하여 어떤 한 편에도 결과가 좌우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방식(Leave-One-Out)이고, 다른 하나는 같은 자료에서 텍스트를 복원추출하여 결과의 변동 폭을 추정하는 방식(부트스트랩)이다. 이로써 표본이 바뀌어도 유지되는 결론과 일부 텍스트에 의존하는 결론을 구분하여 제시한다.

4. 분석 결과

1) 비평가별 핵심 어휘의 분포

표 3 비평가별 LL 상위 어휘

김기림	임화	박용철
비평 (141)	낭만주의 (102)	인상 (46)
비평가 (58)	언어 (101)	임화 (38)
모더니즘 (50)	리얼리즘 (74)	효과 (31)
과학 (34)	낭만 (57)	김기림 (31)
		기술 (30)
		변설 (25)

〈표 3〉은 로그우도비(LL) 분석을 통해 각 비평가의 담론적 특이성을 드러내는 핵심 어휘를 추출한 결과이다. 세 비평가의 어휘 구성에서 뚜

렷한 차별성이 확인되었다. 여기서 LL 상위 어휘는 자주 사용된 어휘가 아니라, 해당 비평가를 다른 비평가와 변별하는 담론적 표지라는 점에서, 각 비평가가 공유된 논쟁 공간 안에서 어떤 고유한 어휘장을 구성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읽혀야 한다.

임화의 LL 목록은 낭만주의(102), 언어(101), 리얼리즘(74), 낭만(57) 등이 두드러지는데, 임화의 담론이 문예사조의 차원에서 개념을 정의하고 심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낭만주의와 리얼리즘이 모두 높은 LL 어휘로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임화가 두 사조를 대립적 구도 속에서 논의의 주요 대상으로 삼았음을 반영한다. 아울러 언어가 LL 상위 어휘로 나타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임화가 기교주의 논쟁을 시의 기법 논의에 그치지 않고 언어의 본질 및 기능에 대한 이론적 탐구로 전화(轉化)시켰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언어’가 다른 두 비평가의 담론에서는 상대적으로 주변적 위치를 점하는 어휘임을 함께 드러낸다는 것이다.

김기림에게서 최상위에 오른 것은 비평(141), 비평가(58), 모더니즘(50), 과학(34) 등이다. 비평과 비평가라는 메타비평적 어휘가 LL 최상위에 위치한 것은 김기림의 담론이 시론(詩論) 자체보다 비평의 방법론에 무게를 두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임화와 박용철에게서 비평·비평가가 이처럼 현저하게 집중된 어휘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과 대비된다. 과학이 높은 LL 어휘로 나타나는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임화와 박용철의 담론에서 과학은 주변적 어휘에 속하는 반면, 김기림에게 그것은 담론의 정당성을 구성하는 준거 어휘로 기능하였음을 방증한다.

박용철의 어휘 중 높은 LL을 보여주는 어휘로는 인상(46), 효과(31), 기술(30), 변설(25)이 상위에 위치하며, 주목할 만한 것은 임화(38)와 김기림(31)이 높은 LL 값을 보이는 어휘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타 비평가의 고

유명이 LL 상위에 출현한다는 것은 박용철이 상대방을 직접 거명하며 논쟁을 전개하는 전략을 구사하였음을 의미한다. 김기림과 임화의 LL 목록에서 상대방의 이름이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과 대조적이다. 인상과 효과는 효과주의 비평의 어휘장으로 박용철 시론의 수용 과정 중시 경향과 부합한다. 기술과 변설이 LL 높은 어휘로 나타난다는 것은 박용철이 ‘영혼’이나 ‘영감’과 같은 선시적(先詩的) 개념을 이론적으로 반복 논증하기보다, 시 창작 과정의 기술적 차원을 담론의 전면 에 내세우는 방식을 택하였음을 보여 준다. 그의 시론에서 영감이 논증의 대상이 아니라 전제된 토대로 기능한다는 질적 연구의 해석을 어휘 분포의 차원에서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정규화 빈도(NF) 분석에서도 비평가별 차이는 두드러진다. 기교의 NF는 박용철(3.13)에서 가장 높고 임화(1.97)가 그 뒤를 이으며 김기림(약 0.6)에서 가장 낮다. 그러나 이 어휘가 각 비평가의 텍스트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상이하다. 박용철과 임화에서 기교는 비판의 표적으로 빈번히 호명되는 반면, 김기림에서는 자기 반성과 재정립의 대상으로 기능하는데, 이 차이는 이후 시기별 NF 변화 분석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내용과 형식의 공기 관계를 상호정보량(MI)으로 분석한 결과, 임화(MI=3.58)에서 두 어휘의 공기 강도가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MI 수치가 높다는 것은 내용과 형식이 임화의 텍스트에서 개념적으로 긴밀히 연계되어, 하나를 논할 때 다른 하나가 반드시 인접하여 등장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음을 의미한다. 반면 김기림과 박용철에서 이 공기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은 두 어휘가 각각 독립적인 맥락에서 사용되었음을 의미한다. 바꿔 말하면 내용과 형식의 관계 자체가 명시적 논증의 주제로 기능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이는 임화가 내용과 형식을 변증법적 긴장 관계 속에서 의식적으로 논의한 유일한 비평가임을 계량적으로 확

인시켜 준다.

2) 담화 자세의 차이 - 강화 완충 비율(BHR)

표 4 비평가별 강화-완충 비율(BHR)

비평가	BHR	자세 해석
김기림	0.71	유보
임화	1.07	단언
박용철	0.44	유보

세 비평가의 BHR은 임화(1.07)·김기림(0.71)·박용철(0.44) 순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 차이는 기교주의 논쟁이라는 공통된 담론 공간에 참여하면서도 세 비평가가 각자 현저히 상이한 명제 제시 방식을 구사하였음을 보여준다.

김기림의 BHR이 0.71이라는 낮은 값을 보인다는 것은 그의 텍스트에서 완충 표현이 다소 우세하여 단정을 보류하는 쪽으로 사용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단언적 주장보다 탐색적·분석적 논의를 즐겨 사용하는 서술 방식을 의미하며, 결론을 확정하기보다 가능성을 검토하는 글쓰기 태도와 연동된다. 오형엽이 김기림 시론의 특징으로 제시한 “가치중립적 객관주의와 과학적 분석주의”가 담화 양식의 수준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남을 이 수치가 보여준다.

박용철의 BHR이 가장 낮다는 것은 그의 텍스트에서 완충 표현이 강화 표현을 가장 큰 폭으로 앞선다는 의미이다. 박용철은 세 비평가 중 자신의 명제를 가장 유보적으로 제시하는데, 박용철을 ‘확신에 찬 단언자’로 본 통념은 강화 표현의 빈도로는 뒷받침되지 않으며, 오히려 그의 영감 중심 시론이 단언이 아니라 전제된 토대 위에서 신중하게 전개되

있음을 시사한다.

임화의 BHR은 전사기 1.19, 전개기 1.17, 여파기 1.46으로 전 시기에 걸쳐 1을 상회하여, 세 비평가 중 가장 단언적인 자세를 일관되게 유지한다. 여파기에 정점에 이르나 그 상승은 완만하며, 여파기가 소규모 셀(3편)이라는 점에서 ‘급격한 확신의 강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임화가 전 시기 단언적 어조를 유지했다는 사실은 그의 비평이 명제를 확정적으로 제시하는 서술과 연관이 있음을 보여준다.

3) 접속 표지를 통한 논증 구조 분석

표 5 비평가별 접속 표지 유형별 정규화 빈도(NF)

비평가	대조	원인-결과	첨가	예시·환언	요약·결론
김기림	3.67	5.48	4.95	2.29	0.32
임화	6.29	6.36	6.47	2.68	0.74
박용철	7.65	2.43	6.26	0.87	0.17

접속 표지의 유형별 NF 분석은 세 비평가가 서로 다른 논증 구조를 구사하였음을 보여 준다. 김기림은 원인-결과형(5.48)이 자신의 접속 표지 유형 가운데 가장 높은 한편, 대조형(3.67)은 세 비평가 가운데 가장 낮다. 원인-결과형의 우세는 그의 텍스트가 인과적·논리적 추론의 연쇄를 통해 전제에서 결론을 도출하는 연역적 방식으로 논지를 구성함을 뜻하고, 대조형의 상대적 빈약은 그의 서술이 상대와의 대립보다 분석에 무게를 둬음을 보여준다. 원인-결과형의 비평가 간 최고치는 임화(6.36)이지만, 대조형이 가장 낮다는 점에서 대립보다 분석을 앞세우는 김기림의 특징은 뚜렷이 변별된다. 이는 과학적 분석주의라는 김기림 특유의 비평 태도가 문제 차원에서도 발현된 것으로 읽힌다. 시계열로 보면,

발단기에 예시·환언형 접속 표지가 5.44로 급증하여 다른 시기(1 안팎)를 크게 웃돌고, 전개기에는 대조형이 6.17로 가장 높아진다. 발단기의 예시·환언형 집중은 개념을 상세히 설명하고 재진술하며 이론적 입장을 정립하는 단계를 반영하고, 전개기의 대조형 증가는 상대와 자신의 입장을 대비하는 서술 전략으로의 전환을 나타낸다. 다만 전개기는 단일 텍스트(811어절)에 근거하므로 이 추이는 경향으로만 읽는다.

임화는 대조형(6.29)과 첨가형(6.47) 접속 표지에서 모두 높은 NF를 보인다. 대조형 접속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논증이 본질적으로 대립 구도의 설정을 중심으로 전개됨을 의미하며, 동시에 첨가형이 함께 높다는 점은 대립의 설정 위에 논거의 누적적 부연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논지를 심화하였음을 시사한다. 낭만주의 대 리얼리즘, 기교주의 대 내용주의, 형식 대 내용이라는 변증법적 긴장 구조가 어휘 선택뿐 아니라 접속 표지의 운용 방식을 통해서도 텍스트에 새겨져 있음을 보여 준다.

박용철은 대조형 접속 표지(7.65)에서 세 비평가 중 가장 높은 NF를 나타낸다. 박용철의 대조형 압도는 그의 비평이 상대방 입장의 인용과 그에 대한 반박이라는 응대적 구조 위에서 전개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앞 절에서 보았듯 박용철의 LL 상위 어휘에 임화·김기림 등 상대 비평가의 이름이 직접 등장한다는 사실과 일관된다. 박용철 텍스트의 구조적 특성은 자기 미학적 개념의 반복적 환언이라기보다 상대 입장에 대한 대조적 응대에 있다. 다만 이 구조는 그의 담화 자세와 흥미로운 대비를 이룬다. 박용철은 접속 표지에서 가장 강한 대조·반박 구조를 취하면서도(7.65), 정작 자신의 명제는 세 비평가 중 가장 유보적으로 제시한다. 그는 상대를 대립적으로 반박하되, 자기 주장을 단언적으로 밀어붙이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4) 핵심 어휘의 통시적 변화

표 6 기교·기술의 2분할(전기·논쟁기) 정규화 빈도(NF) 변화

비평가	전기 기교 / 기술	논쟁기 기교 / 기술	기교 증감	기술 증감
김기림	기교 0.27 / 기술 1.42	기교 2.72 / 기술 0.78	+2.45	-0.64
임화	기교 0.00 / 기술 0.10	기교 3.23 / 기술 0.37	+3.23	+0.27
박용철	기교 1.10 / 기술 2.74	기교 4.07 / 기술 5.34	+2.97	+2.60

표 7 기교·기술의 하위 시기별 NF 추이

비평가	어휘	전사 이전	전사	발단	전개	여파
김기림	기교	0.00	0.36	0.38	8.63	0.00
	기술	0.26	1.45	2.25	0.00	1.14
임화	기교	-	0.00	-	4.64	0.00
	기술	-	0.10	-	0.35	0.40
박용철	기교	1.10	-	-	5.19	0.00
	기술	2.74	-	-	5.84	3.53

이분할 비교와 시기별 NF 분석을 통해 논쟁 전후에 걸친 어휘 사용의 통시적 변화를 추적한 결과, 세 비평가에서 각각 상이한 패턴이 확인되었다.

기교와 기술의 운용 방식은 기교주의 논쟁의 핵심 쟁점을 추적하는 가장 직접적인 지표이다. 먼저 주목할 것은 신뢰성이 더 높은 2분할 집계(표 6)에서 세 비평가 모두 논쟁기에 기교 NF가 상승한다는 사실이다(김기림 +2.45, 박용철 +2.97, 임화 +3.23). 이는 기교가 논쟁의 공통 쟁점어인 만큼 논쟁 국면에서 세 비평가 모두 이 어휘를 빈번히 호출하였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기교 빈도 자체는 세 비평가를 변별하지 못한다. 변별의 지점은 기술의 운용에 있다.

박용철은 전 시기에 걸쳐 기술이 기교보다 우위에 있는 유일한 비평

가다. 전체 NF에서도 기술(4.52)이 기교(3.13)를 상회하며, 2분할에서 기술은 논쟁기에 5.34까지 상승하여 세 비평가 중 최고치를 보인다. 박용철에게 기교는 논쟁기에 급증하지만(1.10 → 4.07), 이는 그가 「기교주의 설의 허망」(1936.3)에서 보듯 기교주의를 비판하기 위해 그 개념어를 빈번히 인용한 결과이며, 자신의 적극적 개념은 일관되게 기술이었다. 하위 시기(〈표 7〉)로 보면 전개기에 기교(5.19)와 기술(5.84)이 동반 급증했다가 여파기에 기교만 소거되고 기술(3.53)이 남아 있는데, 다만 여파기는 단일 텍스트(849어절)에 근거하므로 이 소거 양상은 확정적 결론이 아니라 경향을 관찰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임화는 기교와 기술을 모두 자신의 개념어로 거의 사용하지 않는 비평가다. 기술 NF는 논쟁기에도 0.37에 그치며, 기교는 전시기 0.00에서 전개기 4.64로 급등했다가 여파기 0.00으로 소거되는 V자형을 보인다. 이는 임화에게 기교가 「기교파와 조선시단」(1936.2) 등에서 비판 대상을 지칭하기 위해 논쟁 절정기에 일시적으로 동원된 어휘일 뿐, 자신의 이론적 언어가 아니었음을 시사한다.

김기림은 기교와 기술의 무게중심이 역전되는 유일한 사례다. 전기에 기술(1.42)이 기교(0.27)를 상회하다가 논쟁기에 기교(2.72)가 기술(0.78)을 역전한다. 이는 김기림이 논쟁 과정에서 상대가 비판 표적으로 설정한 어휘를 자신의 담론에 수용·재정립하였음을 시사한다. 다만 이 역전을 주도하는 전개기 기교 NF(8.63)는 811어절 단일 텍스트에서 산출된 값이므로, 역전 서사는 신중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임화 코퍼스에서의 낭만·리얼리즘 전환은 그의 시론 발전 과정을 압축적으로 반영한다. 이분할 분석에서 낭만의 NF 변화값은 -1.82로 감소한 반면, 리얼리즘은 +3.99로 현저히 증가하였다. 리얼리즘 NF의 급증은 이 어휘가 전기에는 주변적 위치에 있다가 논쟁기에 담론의 핵심으

로 부상하였음을 의미하며, 이는 임화의 시론이 낭만주의 비판에서 사회주의 리얼리즘 정립으로 이동하는 궤적을 어휘 사용의 실제 변화로 확인시켜 준다. 동시에 사상의 NF가 전사기(0.95)에서 논쟁기(3.29)로 증가하는 것도 이 궤적과 궤를 같이한다.

5) 인식 준거점과 발화 양식의 호응

표 8 내용축 어휘 우위와 담화 자세의 대응

비평가	내용축 NF			우위 준거	BHR	발화자세
	내용	형식	영감			
김기림	1.17	0.91	0.21	내용 우선	0.71	유보
임화	2.34	2.01	0.04	내용 우선	1.07	단언
박용철	0.69	0.52	0.87	영감 우선	0.44	유보

앞의 분석이 어휘 정체성(1절)·담화 자세(2절)·논증 구조(3절)·통시 변화(4절)를 개별적으로 다루었다면, 이 절은 그 결과를 교차하여 본 연구의 세 번째 질문인 ‘내용 차원의 인식 준거점이 발화 양식과 어떻게 호응하는가’에 답한다. 각 비평가의 내용축 핵심 어휘(내용·형식·영감)의 상대적 우위를 BHR이 측정한 담화 자세와 대응시키면 다음과 같다.

이 대응에서 세 가지 양상이 관찰된다. 첫째, 김기림과 임화는 동일하게 내용 우선의 어휘 구성을 보이면서도 담화 자세는 갈린다(BHR 0.71 대 1.07). 김기림은 1을 밀돌아 유보적·분석적, 임화는 1을 넘어 단언적이다. 동일한 내용 준거가 상반된 발화 양식과 결합한다는 것은 내용 지향이 라는 인식 준거점이 발화 양식을 직접 결정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둘째, 박용철은 세 비평가 중 유일하게 영감 우선의 구성을 보이면서, 동시에 가장 유보적인 BHR(0.44)을 기록한다. 신문봉이 제시한 ‘천재적

영감은 가장 단언적인 발화가 아니라 가장 신중한 발화와 결합한다. 더욱이 영감 NF는 0.87에 불과하여, 영감이 반복 논증되는 주제가 아니라 전제로 깔린 채 그 위에서 신중하게 기술이 전개되는 구조를 드러낸다. 이는 영감을 박용철 시론의 토대 개념으로 본 기존 해석을, 그 토대가 단언이 아니라 유보적 어조로 운용된다는 점에서 정밀화한다.

셋째, 준거점과 발화 양식의 호응은 정태적이지 않다. 임화의 경우 내용 우선이라는 준거가 전 시기에 유지되는 가운데, 단언적 자세(BHR>1) 또한 전 시기에 일관되며 여파기에 완만히 높아진다. 다만 이 변화는 소규모 셀에 근거하므로 경향으로만 읽는다. 준거점-발화 양식의 호응이 고정적이지 않다는 점은 공식적 분류로 포착되지 않는 통시적 층위가 있음을 시사한다.

5. 맺음말

본 연구는 1930년대 기교주의 논쟁을 대상으로 김기림·임화·박용철 세 비평가의 비평 텍스트 29편을 코퍼스 분석 방법으로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는 기존 연구의 질적 해석에 정량적 근거를 더하는 동시에, 논쟁 과정에서 어휘가 변화·형성되는 통시적 양상을 추적함으로써 논쟁에 관한 이해를 확장하고자 하였다. 본 장에서는 그 방법론적 의의를 세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상의 정량적 분석 결과는 기교주의 논쟁에 관한 기존 연구의 논의를 재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기교주의 논쟁의 주요 연구인 오형엽의 문제설정, 강계숙의 시론 역학 분석, 신문봉의 인식 준거점 분석은 각각 정밀한 텍스트 독해와 이론적 구성력을 통해 기교주의 논쟁의 의미

구조를 해명한 성과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공통적으로 연구자의 해석 행위를 통해 텍스트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질적 방법론에 의존하며, 비평가들의 언어 사용 실천 자체를 데이터로서 검토하지는 않는다. 본 연구는 이 지점에서 방법론적으로 구별되는 접근을 시도한다.

첫째, 기존 연구의 논지들은 전형적으로 텍스트에서 논거를 선택하고 배열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이는 불가피하게 해석의 선별성 혹은 자의성 문제를 동반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논지를 지지하는 텍스트 구절이 선별적으로 부각되는 문제를 내포한다. 본 연구는 코퍼스 전체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어휘 빈도와 분포를 산출함으로써, 기존 해석의 논지들을 텍스트 전체의 언어 사용 패턴으로부터 귀납적으로 재확인하거나 수정하는 독립 검증의 기반을 마련한다. 예컨대 임화의 내용 중심성, 김기림의 분석적 객관주의, 박용철의 수용 과정 중시 등은 모두 기존 연구에서 질적으로 규명된 특성들이지만, 본 연구는 이 특성들이 각 비평가의 실제 어휘 사용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남을 귀납적으로 확인한다. 이 확인의 의의는 기존 해석의 반복으로 볼 수 있지만, 그 해석들이 특정 텍스트 구절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 사용 전체에 걸쳐 근거를 지님을 보여준다. 나아가 빈도는 한 어휘가 비평가 자신의 개념인지 상대 개념의 비판적 인용인지를 구별하지 못한다. 예컨대 ‘기교’는 그것을 비판한 박용철·임화에게서 오히려 빈번한데, 그 방향성의 판별은 정독을 요구한다. 이 점에서 본 연구는 재확인을 넘어 계량과 정독의 분업이 필연적임을 보인다.

둘째, 기존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공시적(synchronic) 분석을 기본 틀로 삼는다. 오형엽의 문제설정 유형론, 강계숙의 시론 역학 분석, 신문봉의 인식 준거점 분류는 모두 비평가들의 특성을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전제하거나, 전기와 후기의 이분적 구분을 통해 변화를 포착하는 수준

에 머문다. 본 연구의 시기별 분석은 이 논쟁이 단일한 사건이 아니라 전사기부터 여파기에 이르는 동적 과정이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각 비평가의 언어 사용과 담화 자세가 이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변화하였음을 구체적 수치로 보여준다. 임화의 핵심 사조어가 낭만(-1.82)에서 리얼리즘(+3.99)으로 이동하는 과정, 김기림의 기교·기술 무게중심이 논쟁기에 역전되는 과정 등은 기존의 공시적 유형론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논쟁 과정 내부의 역동성을 가시화한다. 이 통시적 차원은 기교주의 논쟁이 각 비평가의 고정된 입장들 사이의 충돌이 아니라, 논쟁 과정 자체가 각 비평가의 담론을 변화·심화시킨 사건이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해석적으로도 의미를 지닌다.

셋째, 본 연구는 인식 준거점과 발화 양식의 호응 관계에서 정성 해석이 충분히 다루지 못한 지점을 발견하였다. 김기림과 임화는 동일하게 내용 우선의 어휘 구성을 보이면서도 담화 자세는 갈렸다(BHR 0.71 대 1.07). 김기림은 유보적·분석적이고 임화는 단언적이다. 이는 내용 지향이라는 공통 준거가 발화 층위에서 구분되며, 인식 준거점이 발화 양식을 직접 결정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한편 박용철의 영감은 절대 빈도로는 극히 낮으면서도(NF 0.87) 가장 낮은 BHR(0.44)과 결합하였는데, 이는 영감이 반복 논증되는 주제어가 아니라 담론의 전제로 기능하면서 그 위에서 가장 신중한 발화가 이루어지는 구조임을 드러낸다. 이는 박용철을 확신에 찬 단언자로 본 통념을 어휘·자세 양면에서 정밀화한다. 이처럼 어휘 빈도와 담화 자세가 어긋나거나 결합하는 양상은 어느 한 지표만으로는 포착되지 않으며, 계량 지표 간 교차를 통해서만 가시화된다. 이는 계량적 결과와 정성적 해석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층위의 텍스트적 실재를 포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세 가지 의의 외에, 본 연구는 발표 매체에 따른 BHR의 차이

를 부수적으로 관찰하였다. 본문에는 서술하지 않았지만, 데이터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김기림과 임화가 신문 연재와 잡지 비평에서 상반된 방향의 담화 자세를 보인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다만 이는 표지 코딩에 민감한 BHR에 근거한 잠정적 관찰로, 1930년대 비평 텍스트를 독해할 때 생산·유통 매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데 그친다. 다만 이 차이가 매체 자체의 관습적 효과인지, 두 매체에서 다루어진 주제와 쟁점의 차이를 반영한 것인지는 본 분석의 범위 안에서 확정하기 어렵다. 이 관찰은 본 연구의 주된 발견에 포함되지 않으며, 후속 연구에서 별도로 검토되어야 할 영역으로 남겨 둔다.

요컨대, 본 연구는 기교주의 논쟁 연구의 기존 축적을 부정하거나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기존 연구들이 질적 독해를 통해 구성한 해석적 틀을 텍스트 전체의 언어 사용 데이터와 교차 검증함으로써, 그 해석들의 근거를 확장하고 동시에 기존 방법론이 포착하지 못한 통시적 변화와 매체적 차이를 함께 가시화하는 데 그 방법론적 의의가 있다. 텍스트의 의미는 연구자의 해석을 통해 매개될 수밖에 없지만, 동시에 그 의미의 일부는 비평가들이 실제로 어떤 언어를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였는가에 언어 사용의 실천에 이미 내포되어 있다. 본 연구는 그 흔적을 정량적으로 추적하는 시도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퍼스의 규모가 통상적인 코퍼스 언어학 기준에서는 소규모에 속하므로, 분석 결과는 일반화 가능한 결론이라기보다 추가 검토를 요하는 패턴일 뿐이다. 특히 박용철 코퍼스의 시기별 셀은 텍스트 수가 적어 해석상의 신중함이 요구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이분할 비교를 병행하였다. 둘째, 형태소 분석 도구가 옛 표기·연철에서 일부 분석 오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부 어휘의 인식 정밀도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셋째, 매체 효과의 의식적 전략

여부는 정량 분석의 범위를 넘어선 사안으로, 추가적인 질적 검토를 요구한다. 넷째, BHR은 표지의 의미 판정에 민감하여, 본 연구는 완충 '수 있다'와 강조 '물론'을 각각 용법에 따라 구분하고 두 연구자의 독립 코딩으로 검증하였다. 다만 검증 표본이 작고 일부 범주의 사례가 적어 절대 수준의 해석에는 신중함이 요구되며, 따라서 '단언/유보'의 절대 라벨보다 세 비평가 간 상대적 순위(임화>김기림>박용철)에 무게를 두어 해석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코퍼스를 다른 비평 논쟁으로 확장하는 작업, 접속 표지 운용의 미시 구조에 대한 분석, 매체별 글쓰기 관습에 관한 사료적 검토 등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접수일(2026.5.25.), 심사 및 수정일(1차 2026.6.18., 2차 2026.6.22.), 게재확정일(2026.6.22.)

참고문헌

〈기본 자료〉

- 김기림, 1988, 『김기림전집 2 - 시론』, 심철당.
 박용철, 2004, 『박용철전집 II - 평론집』, 깊은샘.
 임 화, 2009, 『임화문학예술전집 3 - 문학의 논리』, 소명출판.

〈단행본〉

- 반 다이크, 2001, 『텍스트학』, 정시호 역, 아르케(Teun A. van Dijk, 1980, *Textwissenschaft. Eine interdisziplinäre Einführung*, Tübingen: Max Niemeyer).
 볼프강 하이네만·디터 피이베거, 2001, 『텍스트언어학 입문』, 백설자 역, 역락(Wolfgang Heinemann und Dieter Viehweger, 1991, *Textlinguistik. Eine Einführung* (Reihe Germanistische Linguistik, Bd. 115), Tübingen: Max Niemeyer).
 연세대 근대한국학연구소, 2020, 『디지털 인문학과 근대한국학』, 소명출판.
 오경섭·김진하·홍석훈·이지순·한기범, 2020, 『김정은 정권 통치 담론과 부문별 정책 변화: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담화-연설 분석』, 통일연구원.
 오형엽, 2023, 『한국 근대시와 시론의 구조적 연구』, 태학사.
 크리스 바커, 2009, 『문화연구와 담론분석』, 백선기 역, 커뮤니케이션북스(Chris Barker and Dariusz Galasiński, 2001, *Cultural Studies and Discourse Analysis: A Dialogue on Language and Identity*, London: SAGE).
 Baker, P., 2006, *Using Corpora in Discourse Analysis*, London: Continuum.
 Baker, P., Gabrielatos, C. and McNery, T., 2013, *Discourse Analysis and Media Attitudes: The Representation of Islam in the British Pres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Halliday, M. A. K. and Hasan, R., 1976, *Cohesion in English*, London: Longman.
 Hyland, K., 2005, *Metadiscourse: Exploring Interaction in Writing*, London: Continuum.
 Wiedemann, G., 2016, *Text Mining for Qualitative Data Analysis in the Social Sciences: A Study on Democratic Discourse in Germany*, Wiesbaden:

Springer VS.

〈논문〉

- 강계숙, 2014, 「기교주의 논쟁의 시론적 의의」, 『현대문학의 연구』 54, 한국현대문학연구회, 213~254쪽.
- 구나경, 2012, 「비평적 담화분석 관점에서 살펴본 개화기 해외발행 민족지의 안중근 의거 보도」, 『텍스트언어학』 33,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13~260쪽.
- _____, 2013, 「비평적 담화분석 관점에서 살펴본 일제강점기 의거보도 연구: 이봉창 의거를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34, 한국텍스트언어학, 63~101쪽.
- _____, 2014, 「비평적 담화분석 관점에서 살펴본 만평 분석 - 경향신문에 나타난 대통령 이미지를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36, 한국텍스트언어학, 1~39쪽.
- 김병준, 2024, 「근대 국한문혼용체 자료 서브워드 기반 형태소 분석기의 설계와 적용」, 『디지털인문학(KJDH)』, 1(2), 디지털인문학, 68~76쪽.
- 김병준·전봉관, 2023, 「민족, 국민, 국가 - 시계열 워드 임베딩을 활용한 조선일보 기사의 민족 담론 의미 변동 추적(1920~40)」, 『현대소설연구』 90, 한국현대소설학회, 5~38쪽.
- 류찬열, 2000, 「1930년대 기교주의 논쟁에 관한 연구」, 『어문논집』 28, 중앙어문학회, 181~199쪽.
- 박상경, 2025, 「한국어의 텍스트적 메타담화표지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용익, 2017, 「텍스트언어학의 혁신과 도약을 위한 '인문 텍스트언어학」, 『텍스트언어학』 42, 한국텍스트언어학회, 31~57쪽.
- 신문봉, 2022, 「1930년대 기교주의 논쟁에 나타난 인식의 준거점 - 형식과 내용, 그리고 영감」, 『우리어문연구』 74, 31~59쪽.
- 윤여탁, 1994, 「1930년대 기교주의 논쟁의 전개와 그 의미」, 『한국어교육학회지』 52, 한국어교육학회, 1~20쪽.
- 이재연, 2016, 「키워드와 네트워크: 토픽 모델링으로 본 『개벽』의 주제 지도 분석」, 『상허학보』 46, 상허학회, 271~316쪽.
- _____, 2016, 「『생활』과 『태도』 - 기계가 읽은 『개벽』과 『조선문단』의 작품 비평어와 비평가」, 『개념과 소통』 18, 5~52쪽.
- 전성규, 2023, 「한국 근대 잡지의 계량적 연구 방법에 대한 논의: 코퍼스 구축 및 데이터 분석의 사례를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82, 민족문학사연구소, 159~210쪽.
- _____, 2026, 「근대 신문자료 공간분석을 위한 디지털인문학 워크 플로우 - 『황성신문』

- (1898~1904) 잡보란 일본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133,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9~258쪽.
- 정혜승, 2012, 「대화적 문식성 교육을 위한 상위담화(metadiscourse) 범주 구성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43, 국어교육학회, 459~485쪽.
- 조동일, 2000, 「문학작품의 구조분석」, 『텍스트언어학』 9, 텍스트언어학회, 1~13쪽.
- 한형구, 2005, 「30년대 문단 재편과 시론의 비평적 전개: '기교주의 논쟁' 재음미」, 『한국현대문학연구』 17, 한국현대문학학회, 221~253쪽.
- 허 수, 2014, 「어휘 연결망을 통해 본 '제국'의 의미」, 『대동문화연구』 87,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501~561쪽.
- _____, 2022, 「1920년대 신채호의 텍스트와 '민중」, 『역사비평』 140, 역사문제연구소, 282~306쪽.
- 홍혜란·박지순, 2020, 「한국어 교육을 위한 텍스트 장르별 메타 담화 표지 연구」, 『국제어문』 84, 국제어문학회, 79~114쪽.

Abstract

A Text-Linguistic Analysis of the 1930s Mannerism Debate

Byeongjoo Lee*

■ **Keywords:** Kirim Kim, Hwa Im, Yongcheol Park, literary criticism, text mining, text linguistics, corpus analysis, cohesion, metadiscourse

This study analyzes 29 critical texts (totaling 51,420 eojeols) by Kirim Kim, Hwa Im, and Yongcheol Park — the three critics who participated in the Mannerism Debate (技巧主義) of the 1930s — through a methodology that combines text mining and text linguistics. The analytical tools include normalized frequency (NF), log-likelihood ratio (LL), mutual information (MI), the Booster-Hedge Ratio (BHR), and the distribution of conjunction markers; these quantitative outputs are interpreted through the text-linguistic frameworks of cohesion and metadiscourse. The methodological premise is that text mining identifies what is observed while text linguistics interprets what it means.

The analysis reveals clear lexical differentiation among the three critics. Hwa Im's distinctive vocabulary centers on romanticism, language, and realism; Kirim Kim's on criticism, modernism, and science; and Yongcheol Park's on impression, effect, and technique, with the proper names of the other two critics also appearing among his LL top-ranked words — quantitatively confirming his position as the respondent in the debate. The BHR values — Hwa Im (1.07), Kirim Kim (0.71), and Yongcheol Park (0.44) — indicate marked differences

* Republic of Korea, Air Force Academy.

in epistemic stance: Hwa Im is the most assertive, exceeding 1 consistently across all phases, whereas Yongcheol Park is the most reserved, employing the highest density of hedges. Hwa Im's BHR remains above 1 throughout the debate (1.19, 1.17, and 1.46 across the successive phases), reaching a modest peak in the aftermath phase rather than escalating sharply. In the diachronic trajectory of *gigyo* (mannerism) and *gisul* (technique), all three critics increased their use of *gigyo* during the debate phase; the point of differentiation lies rather in the handling of *gisul* — Yongcheol Park maintained the predominance of technique throughout, Hwa Im mobilized *gigyo* only temporarily as a critical target, and Kirim Kim exhibited a reversal in the relative weight of the two terms. Hwa Im's dialectical integration of content and form is reflected in the highest MI value (3.58) for the co-occurrence of these two terms among the three critics, while distinct argumentative structures emerge in the conjunction marker distribution: Kirim Kim shows causal markers as his most frequent type (5.48) yet the lowest contrastive frequency among the three (3.67), foregrounding analysis over opposition; Hwa Im combines contrastive (6.29) and additive (6.47) markers; and Yongcheol Park relies overwhelmingly on contrastive markers (7.65).

The study further conducts a cross-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ontent-level cognitive reference points and modes of utterance. Although Kirim Kim and Hwa Im share an identical content-oriented lexical composition, their discursive stances diverge (BHR 0.71 vs. 1.07): Kirim Kim is exploratory and analytical, while Hwa Im is assertive. Yongcheol Park's "inspiration" registers an extremely low absolute frequency (NF 0.87), yet it is coupled with the lowest BHR (0.44) — indicating that inspiration functions not as a repeatedly argued keyword but as a premise underlying the discourse, upon which his claims are advanced in the most cautious rather than the most

assertive manner. These findings show that a cognitive reference point does not directly determine the mode of utterance. Rather than merely verifying prior qualitative interpretations, this study contributes on three fronts: it secures the validity of its metadiscourse measures by manually hedge and booster markers; it makes visible the cracks in static typologies of cognitive reference points — through the use/mention distinction that frequency alone cannot capture, and through the diachronic crystallization by which each critic's signature vocabulary was produced during, rather than prior to, the debate; and it thereby demonstrates the necessity of a division of labor in which quantification reveals surface patterns while close reading determines their direction and meaning. It thus presents a case in which the quantitative tools of digital humanities can be integrated with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text linguistics in the study of modern Korean literary criticism.